



비올리스트 에르완 리샤는 오페스 앙상블·
에라트 앙상블·현대음악앙상블 소리·코리아
나 챔버 뮤직 소사이어티·화음 챔버 오케스
트라 멤버, 수원대 교수로 재직중이다.

비브라토 의식하기②

글 에르완 리샤 Erwan Richard

번역 정지운

(지난호에 이어) 많은 기악 연주에서 쓰이는 비브라토. 지난호까지 우리는 비브라토의 역사, 비브라토의 발전과 하나의 연주법으로 인정받기까지의 과정, 비브라토의 원리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비브라토와 연주자의 정체성

비브라토는 연주자의 음악적 정체성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도 한다. 몇몇 유명한 음악가의 비브라토는 듣는 것만으로 구별이 되기도 하는데, 이들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특이한 형태로 비브라토를 발전시켜 하나의 서명과 같은 특징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자크 펄만, 유리 바쉬메트 그리고 로스트로포비치를 떠올려보자. 이들의 비브라토는 정밀하게 묘사하기 어렵지만, 특이하고 모방할 수 없는 그들만의 소리를 만든다.

독일의 바리톤 가수인 디트리히 피셔 디스카우가 부르는 슈만의 '달밤', 미국의 오페라 가수인 제시 노먼이 부르는 <카르멘>, 클래식 가수가 아닌 재즈싱어인 엘라 피츠제럴드와 락가수인 제프 버클리의 노래를 들으며 비브라토 감각을 기를 수 있다. 또한 한국의 가야금 주자들의 연주를 통해 비브라토 움직임을 배울 수 있는데, 그들의 비브라토는 아주 정교하고 치밀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브라토 유의점

비브라토가 자동적인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성적으로 어떤 음을 얼마만큼, 어느 정도의 속도로 움직일 것인지 미리 생각해야 한다. 몇몇 현악기 연주자들의 경우, 특정 손가락으로 비브라토를 쉽게 해낼 수 있기도 하지만 만족스러운 움직임을 얻기 위해 큰 노력을 쏟아야 하는 반대의 경우를 가진 손가락도 있다. 비올라 연주자의 경우 4번째 손가락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음악적 이야기는 비브라토의 사용에 의해 결정이 되어야지, 손가락의 상황에 따라 결정돼서는 안 된다. 어떤 손가락을 쓸 것인지는 결정할 수 있지만 말이다.

비브라토 연습법

비브라토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한다면, 음악적 흐름이 안정적으로 흐르지 못하고 프레이즈의 자연적인 긴장과 해소가 흐려지며 협화음과 불협화음들의 각 특성 또한 사라질 것이다. 이와 같은 경우를 예로 들면, 바흐의 첼로 무반주 곡 중 '사라방드'를 살펴볼 수 있다. 임선되고 계산된 비브라토가 아니면 이 수수께끼 같은 작품은 청자가 듣기에 한층 더 어려워질 것이다.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듯 일관적인 움직임의 비브라토는 음악이 풍부해질 수 있는 방향을 억누른다. 로봇과 같은 움직임을 지속하면 다양한 형태의 비브라토를 시도할 수 없고 개인의 취향과 역사적 배경 그리고 음악적 특징에 맞는 방법을 시도할 기회를 잃게 된다. 때문에 스스로 무의식적인 움직임에 대한 주의를 하며 연습해야 한다. 연주자가 음정이 정확하지 않거나 흐린 억양으로 소리를 낼 때 비브라토가 그 약함과 부끄러운 소리를 가려주지는 못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비브라토는 좋지 않은 연주를 가려주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끝나지 않은 비브라토의 진화

우리는 비브라토의 진화가 아직 진행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더욱 역사적 배경에 근거해 연주하는 영향으로 인해 우리가 현대악기로 연주할 때도 비브라토의 관대한 사용이 줄어들지는 추세다. 그리고 바로크 당대 시대의 스타일로 바로크 양상들이 많이 생겨난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고전과 낭만 시대의 곡에서도 비브라토의 사용을 극히 제한하고 있다.

놀라우면서도 참신한 일화를 언급하며 이 글을 마친다. 브람스와 가까운 교류로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인 요아힘이 연주하는 현악 4중주 연주에 익숙한 청자가 베토벤의 현악 4중주 연주가 끝나고 나니 이런 감상문을 남겼다. "그리고 아주 신비스럽고 감동적이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졌다. 그들 모두가 갑자기 비브라토를 한 것이다!"